

현대문학에서 낸 책이 세계 어디서 낸 책보다 가장 아름답다는 메일을 받거나 독자들에게 '표지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최근 현대문학은 '폴라박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폴라박스는 첫 번째 책으로 대표적인 칙릿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캔디스 부쉬넬의 《립스틱 정글》을 출간했다. 과감하고 발랄한 작품을 통해 현대문학의 50년 전통이 만든 이미지와는 또 다른 젊은 이미지를 만들어 종합출판사로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양대표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현대문학이 지켜온 50년의 '정신'이 변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영정 기획실장은 "현대문학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간한다고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책은 상품이 아닌, 작가와 독자를 잇는 문학의 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만족스러운 책을 낼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현대문학이란 이름에 마음의 빛을 지지 않은 이가 있을까. 그러나 독자의 입장에서 이 빛처럼 기꺼운 빛도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지고 싶은 이런 빛을 현대문학이라면 계속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험난한 순수문학 출판의 길을 걸은 현대문학에게 이 바람이 좁고 편치 않은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

## 이 책 이렇게 나왔다

# 왕실 기밀문서로 복원된 마리 앙투아네트

안토니아 프레이저의 《마리 앙투아네트》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골라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정 기획실장은 망설였다. 모두 '소중한 자식'인데 어느 한 권을 선택하기가 난감하다는 표정이었다. 한참을 서가 앞에서 의논(?)하던 김 기획실장과 윤을식 팀장은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안토니아 프레이저의 《마리 앙투아네트》. 얼마 전 개봉했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영국작가 안토니아 프레이저는 왕가의 인물들에 대한 소설에 가까운 평전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영국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왕실 기밀문서를 볼 수 있었던 작가가 그동안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복원하여 쓴 작품입니다. 인물과 역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그녀의 삶을 다루었다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흥행 실패로 원작이 부각될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이 아쉽다고. 826쪽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도 얇은 읽을거리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분권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전을 분권해버리면 흐름이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다. 윤 팀장은 편집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과 두꺼운 분량으로 인해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나라가 변하면 호칭이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앙투안'에서 '앙투아네트' 이런 식으로, 귀족의 호칭 변화나 복식사 등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또 번역을 두 분이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한 권으로 합쳤을 때 분절감이 없도록 전체적 균형을 잡는 것도 편집부의 몫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펜' 투성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김 기획실장은 좋은 책이 주목받지 못한 것도 안타까웠지만 그에 못지않게 편향된 독자들의 독서관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해외 문학이라고 하면 유럽, 남미, 미국, 일본 등 다양했는데 지금은 오직 한쪽으로만 흘러

가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 건 위험한 일입니다. 새로운 소재와

상상력으로 시도되고 있는 다

른 세계의 문학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

